

요절복통
여래네 집
#37. 융합과 장래 희망
스튜디오들

모처럼 식구가 모여있는 저녁, 엄마가 융합을 한 바가지 삶아 내놨습니다.

우와, 융합이다. 1kg에 2천원 하길래 2kg 사왔어.

냄새 좋고

여래네 식구들은 막내인 보리까지 누구나 해산물을 싫어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답니다.

아주 싱싱하게 그만인걸. 하여간에 우리 애들은 유치원생 중에 보리 말고 융합을 좋아하는 애가 또 있을까?

음, 맛있다. 관찮다마더. 국물은 남겼다가 아침에 미역국 끓여먹자고. 그리고 참! 쪽파는 잘 되어 놓으면 월동도 한대.

다른 건 아무것도 안 넣고 소금하고 옥상에서 뜬이온 쪽파만 넣었는데도 관찮죠?

허야간에 우리 아빠는...
춤, 배 아프고, 무섭고...

융합을 먹다보니 어렸을 때 시골에서 먹던 까막조개가 생각이 나는군.

까막조개요?

응, 염전 저수지에 있는 갯벌에 가면 아이들도 한 바가지씩 캐서 있었는데, 찬바람이 불면 잡이다가 까먹곤 했지.

맛있었다. 맛있게 먹었다.

맞았다.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어패류가 그렇지만 너무 많이 먹으면 속도 쓰리고, 심하면 설사를 한다는 것이랍니다.

아빠 친구 중에 까막조개 먹고 새벽에 배가 아파 화장실에 가서 새벽달 본 경험이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

그 시절 화장실은 집하고 별개로 떨어져 있었다는 거 아시죠?

춤, 배 아프고, 무섭고...

그런데 아빠, 인터넷에서 본 애긴데요. 켄터키 후라이드 치킨 가게 앞에 세워진 할아버지상 있잖아요. 그 할아버지가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는 모두들 거절해서 천 번 이상 찾아가서 부탁했대네요.

치킨 얘기를 들으니 또 치킨이 먹고 싶네.

천 번 이상이라. 링컨 얘기는 안나오데?

그리고 보니 링컨 얘기도 나왔어요. 수없이 떨어지기도 결국엔 대통령 됐다는거.

그럼 그 두 얘기의 요지는 어떠한 경우에도 좌절하지 않고 노력하면 뜻을 이루게 된다 이겁데.

과연 그럴까?

아빠가 하고 싶은 말은 노력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노력해도 안되는 경우도 있다 이거야.

당신은 그게 애들한테 할 소리예요?

나는 그러니까 노력은 하되 조금은 신중을 기해서 하는게 좋지 않나 뭐 그런거지...

아빠는 늘 엄마가 정색을 하고 얘기하면 당황을 합니다. (마초가 아닌 이상 대부분의 남자는 다 그렇다고 봅시다-작가 주)

참, 여래야. 너는 커서 뭐가 되고 싶다고 했지?

이럴 때 가장 좋은 방법은 겹싸게 말을 돌려서야.

에전엔 피아니스트였는데 지금은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되고 싶어요.

나는 운동선수.

우리 보리는 씩씩한 여장부니까 그런 꿈을 꿀 만도 하고 여래도 컴퓨터를 좋아하니 당연한 것 같구나. 하지만 꼭 그것만이 답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열심히 노력하다가 아니면 그때 가서 또 바꾸면 돼.

당신 오늘따라 웬지 말하는게 필요 이상으로 딱딱하고 딱딱한 것 같애.

단 모든 것은 성인이 되기 전까지의 얘기란다. 어른이 되면 바꿀 수도 없고 바꾸지도 못하니까 그전에 신중을 기해야지. 내가 무얼 좋아하고 무엇을 잘하는지...

어, 그랬나? 미안 (또 말을 돌려서) 문득 여래가 4살 때 말하던게 생각나네.

내가 네 살 때 뭐라고 했지?

어느날 이모가 여래는 커서 뭐가 될래 하고 물으니까 "소요" 하고 대답하더라. 이모가 깜짝 놀라서 "소가 되서 뭐 할래?" 하니, "엄금엄금 기어다니려구요" 하고 말해 모두들 얼마나 웃었는지.

옛날 아빠의 꿈은 뭐였어요?

옛날에 아빠의 꿈은 작가가 돼 글을 쓰는 것이었는데 현실은 이렇게 회사원이 되어 살고 있구나. 하지만 후회는 없어. 이게 아빠의 인생이라고 생각하니까.

엄마는?

엄마는 특별하게 없었어. 그냥 멋진 남자 만나서 결혼하고 아들 딸 낳고 알콩달콩 살고 싶었을 뿐.

그건 비밀 말할 수 없어.

아빠! 난 여자 스파이더맨이 될거야.

아빠도 사실은 배트맨이 되고 싶었어.

이주일의 화두
인생의 모든 것 다 이루어진 후에야 비로소 인생의 의미를 깨닫는다.
- 화엄경 -

사업장의 법구 금강 삼고저
장사성공과 사업성공 축원불공 마쳐!

장사가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 개업 선물로도 품격!

은터가 있어 사업이 잘되고 장사가 흥왕하는것을 볼수 있다. 장사가 안되는 자리를 보면 중생의 지혜도 부족하지만 터도 세고 보이지 않는 잡기의 방해로 오는 손님의 마음을 흔들며 문앞에서 방황하게 만들고, 들어왔다해도 결정을 못하게 방해하며, 일하는 사람이나 직원들은 오래 있지 못하고 첫손님이 첫손님이 되면 하루종일 첫손님으로 장사를 힘있게 잡기가 조화를 부린다. 부처님 제1의 법구인 금강삼고저는 사업장의 화를 미리 쫓고 잡기를 풀리치며 사업성공의 수호신으로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 거상들이 사업장에 걸어 놓았던 금강삼고저를 국립 중앙박물관에서 유물로 볼수 있다. 각종 식당과 점포, 각종 사업장, 산재취급이 있는 사업장 등에 금강삼고저가 걸려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으며 장사흥왕 및 사업번창과 산재예방의 축원 불공을 마치고 시판하는 금강삼고저는 금니로 제작되어 있어 품위가 있고 가로8cm 세로3.5cm에 벽에 걸게 고리와 수습이 달려있어 사업장 안에 걸어 놓으면 좋습니다.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가격 : 85,000원 (신용카드 분할가) 문의 : (02)741-4488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농협 : 032-12-193445 이상하 (사찰스님 20% 할인)

부처님 제1의 비방법구
경기가 너무없어, 장사가 너무안되, 문을 닫아야겠어, 요즘사업을 하는 중생들의 푸념이다. 반면 목도 안종고 불경기에도 흥왕을 누리는 점포와 사업장도 많다. 부자가 되는 터가 있고, 패망하는 터가 있고, 그리고 항상 겨우겨우 먹고사는 터가 있다. 한편을 한지붕 밑에서도 중

장사 성공을 축원합니다
식당, 거든, 의류점, 보석상, 부동산중개소, 이미용실, 목욕탕, 다방, 정육점, 노래방, 주점, 모텔, 여관, 병원, 각종학원, PC방, 당구장, 서점, 인쇄소, 문방구, 기원, 복권방, 각종스포츠센터, 핸드폰점, 분영사무소, 안경점, 신발매장, 전자제품매장, 미용실, 방앗간, 공방, 주유소, 신세사로 위험 사업장 등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

평생부자지갑 다라니 福 지갑
원하는 재물을 얻고 평생 부자로 살게 축원 불공 마쳐!!

소중한 남편과 가족친지에게 성공의 선물, 소중한 아내와 자녀에게 부와 사랑의 선물

부처님 법구에는 세상은 동안 물질의 고통을 소멸하고 평생부자로 살게하는 대비신력(大慈悲力)의 법구가 있는데도 미련한 중생이 깨닫지 못하고 법구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고통속에 살아가다. 불가에서는 인연법과 물연법을 중요시 한다. 돈의 집인 지갑 역시 연이 되면 돈이 동서사방에서 들어오지만 연이 안되는 지갑은 돈은 들어오지 않고 고통만 준다. 불경, 다라니의 근본은 신묘장구(神妙章句)로 글자 그대로 신묘하게 묘한일이 일어나 해결된다는 뜻이다. 다라니 복지갑은 동서사방에서 복이 들어오게 하는 법구와 막혔던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영험의 법구가 들어 있으며 음양의 조화로 원하는 소원이 성취되게 왕진언이 지갑 앞면에 들어있다. 소재는 고급소가죽으로 되어 있으며 일반 지갑과는 비교될 수도 없게 내부도 잘 꾸며져 있고 사용하는 중생이 급전의 고통에서 빨리 벗어나 평생 부자로 살게 축원 불공을 마친 복지갑으로 선물로도 뜻깊은 선물이 될 것이다. 남성용 반지갑 65,000원, 여성용 반지갑 95,000원.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신용카드 분할가) 문의 : (02)741-4488 (일요일,공휴일도 상담) 농협 : 032-12-193445 이상하

2011년 쥐띠, 용띠, 원숭이띠, 삼재시작 조심
다락울 삼재화를 미리 쫓는 영험 삼재소멸 금강저

2010년 드는 삼재 2011년 묶는 삼재 2012년 나가는 삼재 용띠, 쥐띠, 원숭이띠 중생들은 2012년 말까지 3년간 삼재기간으로 각별히 조심하고, 공덕을 쌓으며, 자중 자애하는 마음으로 조용히 지내는 것이 좋다. 지난 소띠, 뱀띠, 닭띠 삼재기간 중에 삼재화로 건강으로 고통받고 삼재관재수로 법적인 문제에 휘말리며, 삼재액운으로 사업이 어려워지고 재산을 소진하며, 가정이 파탄되고 하는 일마다 뜻대로 되는 일이 없으며 갖가지 어려운 고통속에 삼재화를 당하는 중생들을 주변에서 많이 보아왔다. 용띠, 쥐띠, 원숭이띠 생들은 삼재가 제일 어려운 시기이므로 자만심을 버리고 비방을 하는 것이 안전하다. 불가에서는 삼재기간 중 삼재화와 삼재액운을 소멸하는 비방으로 불자들에게 부처님 제1의 법구인 **금강저**를 품에 지니고 다니게 한다. 또한 삼재기간중 삼재소멸 비방을 잘하고 자중자애하며 공덕을 쌓으면 삼재기간에도 크게 성공하는 중생들도 많이 있다. 금니로 제작된 삼재소멸금강저는 삼재기간 중 무사무탈하고 승리하게 점안식과 축원불공을 마치고 전화로 신청하면 금강저를 보내 드리며 지갑 속에 평생 넣고 다니면 된다. 가격 : 45,000원 (사찰공급가격 별도상담) 문의 : (02)741-4488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농협 : 032-12-193445 이상하